

## 서어의 -mente형 부사에 관한 연구

임 호 상 (경희대, 서어학)

### I. 서 론

서반아이어 문법에서 부사에 대한 연구는 다른 품사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비교적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한 문장내에서 부사가 갖는 다양한 형태를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서어부사는 -mente라는 형태소를 형용사뒤에 첨가하여 만드는 경우와, 형용사가 부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모든 형용사가 -mente형 부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서어에서 *ser* 동사와 결합이 가능한 형용사는 -mente형 부사가 가능하지만 *estar*동사의 서술어로 쓰이는 형용사는 -mente형 부사가 불가능하다.

(1) inteligente	inteligentemente
rápido	rápidamente
justo	justamente
discreto	discretamente
(2) ausente	* ausentemente
satisfecho	* satisfechamente
lleno	* llenamente
enojado	* enojadamente 1)

형용사의 파생 형태로서 부사의 본질을 논의하는 이상 주어에 대한 술부로서의 기능과 동사에 대한 수식어로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우

1) Marta Luján, *Semántica y Sintaxis del adjetivo*, p.24.

이러한 성격은 영어에서도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quickly*, *discreetly* 등은 가능하나 *absently* 등은 통사적 제한을 많이 받는다. 물론 국어에서도 “그는 빠르다” 라는 문장과 “그는 빨리 걷는다”라는 문장 모두 가능하며 “그는 없이 산다”와 같은 용법도 볼 수 있다.

리가 엄격한 의미로써 부사로 분류하고 있는 부사와 소위 말하는 서술보어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즉 일반부사는 양이나 정도를 가리키는 다른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만 빈도부사의 수식은 전혀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부사화된 형용사(adjetivos adverbiales)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3a) Corren extremadamente/intencionalmente rápido.
- (3b) \*Corren constantemente rápido.
- (4a) Hablaron bastante/admirablemente claro.
- (4b) \*Hablaron continuamente claro.
- (5) Llegaba continuamente cansada.
- (6) El agua de ese arroyo corre constantemente clara.

우리는 부사와 서술보어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수식의 범위 즉 alcance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어에 대한 수식을 동시에 하고 있는 서술보어와 동사에 대한 수식을 주기능으로 하는 부사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위에 열거한 형용사들의 특징에 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파생된 형태로서 서반어어의 부사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보려고 한다. 전통주의 문법학자들이 세웠던 부사의 의미론적 구분이 지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 할 수 있다. 한 문장내에서 부사는 임의적인 요소로 간주되지만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혹 형용사처럼 문장내의 필수요소로서 자기 역할을 한다.

- (7) El accidente fue terrible.
- (8) El accidente fue \*(así).

일부 학자들은 부사와 형용사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과연 아래의 두 명사구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 (9a) El actual primer ministro del Japón
- (9a) ?El actualmente primer ministro del Japón

Bosque의 주장에 의하면 위의 actual과 actualmente는 형용사와 부사의 neutralización의 경우로 보고 있는데 서어의 통사구조상 명사나 명사구를 수

식하는 부사는 아주 드물다는 점과 다른 경우를 볼 때 이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형용사에서 부사로 변하면서 의미가 변화하는 것은 더욱 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다음의 경우에는 두 명사구간에 어떠한 의미적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으며 통사적 문제점도 전혀 없다.

(10a) Los recién casados

(10b) Los recientemente casados

(9)와 (10)의 경우를 비교하면 부사의 수식을 받는 요소가 서로 다르다는 점인데 원래 *Adverbium*으로서의 성격상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와 독립적인 명사구라는 차이점이 있다. 부사가 한 문장내에서 다른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11a) Casi dos mil personas murieron.

(11b) Aproximadamente dos mil personas murieron.

(12a) Son casi falsos.

(12b)\*Son aproximadamente falsos.

앞에서 본 여러가지 부사의 특징과 특히 -mente형 부사가 같은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다.

## II. 본 론

부사가 과연 한 문장내에서 어느 부분을 수식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른 구분을 하고 있지만, 크게 문장부사와 비문장부사라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전통주의 문법에서 보여주고 있는 의미론적 분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통사적 문제점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부사의 속성상 다른 품사를 수식한다는 점에서 과연 어디까지 수식이 미치는가는 부사별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3) Juan lee *mucho*.

(14) Juan salió del cuarto *rápidamente*.

(15) Juan cerró la puerta *rápidamente*.

(16) Juan está *sumamente* cansado.

(17) Juan está *posiblemente* cansado.

문장부사의 Alcance가 가장 넓은 반면에 (13)의 경우는 동사만을 (14)의 경우에는 salió(V)가 아닌 salió del cuarto(SV)를 수식하고 있다. 부사의 위치는 비교적 자유로운 듯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장부사를 제외하고는 동사뒤 (posición postverbal)에 오는 경우가 많다.

(18a) Juan lee demasiado.

(18b)\*Juan demasiado lee.

(19a) Estoy evidentemente cansado.

(19b) Estoy cansado evidentemente.

통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생략(elipsis)이 있는 경우 아래의 문장에서 생략된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 Juan lee *mucho* cuando quiere.

(21) Juan salió del cuarto *rápidamente* cuando Pedro.

위 두 문장의 경우 (20)에서는 생략된 요소가 lee *mucho*라는 동사구이지만 (21)의 경우에는 과연 salió del cuarto *rápidamente*라는 동사구 전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20)의 경우 leer동사만 생략된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부사의 주요한 기능이 동사의 수식이라고 할 때 다음 세 문장을 비교해보면 부사에도 엄격한 시간(tiempo)이라는 형태소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속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2) Juan buscó el libro cuidadosamente.

(23) Juan buscó el libro inútilmente.

(24) Juan buscó el libro probablemente.

(22)의 경우 el momento de buscar와 동일한 반면에 (23)의 경우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동시성(simultaneidad)을 결코 가질 수가 없다. 또한 cuidadosamente라는 부사는 지속성의 의미를 지닌 동사를 수식할 수 있지만

완료적인 동사와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25) Juan leyó el libro cuidadosamente.

(26)\*Juan encontró el libro cuidadosamente.

(24)의 경우 가장 중립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문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24a) Es probable que Juan buscó el libro.

(24b) Era probable que Juan buscara el libro.

(24a)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면 과거에 이루어진 동작에 대한 현재시각에서 본 화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4b)와 같은 해석도 가능한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부사의 위치에 관해서 우리는 어느 다른 품사보다 자유로운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문장부사의 경우나 일반 양태부사는 위치변화로 인한 의미변화가 서로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27a) Ellos corrieron rápidamente.

(27b) Rápidamente corrieron ellos.

(28a) [ō [SN Solamente [SN Luis]] [SV habló en la reunión].

(28b) [ō [SN Luis] [SV solamente [SV habló en la reunión]]].

(28c) [ō [SN Luis] [SV [v solamente[v habló]] [SP en la reunión]]].

(28d) [ō [SN Luis] [SV habló [SV solamente [SP en la reunión]]]].

(29a) Luis habló solamente a los diputados.

(29b)\*Luis habló a solamente los diputados.

(27a)와 (27b)의 경우에는 두 문장의 의미가 다르다기보다는 화자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는가 즉, Tema와 Rema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서반아어의 문장 어순상 문두에 나오는 단어나 강세를 받는 단어는 화자의 의사전달과정에서 뚜렷한 의도(intención comunicativa)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solamente*가 수식할 수 있는 범위는 이 문장내에

서 부사가 가능한 주어에 국한되며 따라서 (28a)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28a') <<Luis es la única persona que habló en la reunión>>.

위의 의미해석에서 볼 수 있듯이 성분통어하는 문장내에서의 요소를 부사가 수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Operador의 기능을 하고 있는 부사의 C-command에 의해 (28b)와 (28c)는 비록 부사의 위치는 같지만 두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동사구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와 술부안의 전치사구만을 수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해석은 다음과 같다.

(28b') <<Lo único que Luis hizo fue hablar en la reunión>>.

(28b'') <<El único lugar donde Luis habló fue en la reunión>>.

(28c') <<Lo único que hizo Luis en la reunión fue hablar>>.

(28b'')의 해석은 (28d)의 의미해석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sup>2)</sup> 위에서 보았듯이 부사가 서로 다른 의미 해석을 부여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probablemente*와 같은 부사는 동일한 부사인지 *evidentemente*같은 부사는 왜 위치변화에 따른 의미변화가 없는지의 문제점도 밝혀야 할 것이다.

(30) Lo encontrarás posiblemente en casa.

(31) Lo encontrarás probablemente en casa.

(32) Lo encontrarás evidentemente en casa.

(33) Lo encontrarás seguramente en casa.

위치에 따른 다른 의미해석은 결국 많은 언어학자들이 주장하는 문장부사의 분류에 있어서 좀더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사자체는 수의 형태소가 없지만 주어의 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사들도 있다. 예를 들면, *respectivamente*, *mutuamente* 등은 주어가 복수임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probablemente*와 같은 부사는 일종의 modalidad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시간이나 명사의 성격이 한 문장내에서 부사의 출현에 유기적으로 선택제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

2) Hernanz y Brucart, *La sintaxis*, págs.190-192.

을 나타내준다.

앞에서 지적했던 부사와 형용사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 명사구들을 비교해보기로 하자.

- (34) Los verdaderos ricos
- (35) Los verdaderamente ricos
- (36) La verdadera felicidad
- (37) \*La verdaderamente felicidad
- (38) La pura mentira
- (39) \*La puramente mentira

(34)와 (35)의 예문을 비교해보면 전자의 경우는 ‘los ricos de verdad’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는 일종의 강조의미가 있다고 본다. ‘정말로 엄청난 부를 소유한 부자’를 지칭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 오는 명사의 성격에 따라 부사가 명사 앞에 위치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

Ana María Tauste는 *todo, verdadero, puro*와 같은 형용사는 다른 단어를 수식할 경우에 단순한 서술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강조의 역할을 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duplicación de la categoría gramatical*의 개념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35)에서 보았듯이 형용사의 이러한 강조적 용법 (*función intensificadora*)이 *verdadero, puro*와 같은 형용사가 부사로 될 때에도 여전히 남아있다.<sup>3)</sup> 그러면 왜 *felicidad* 이나 *mentira*와 같은 단어는 부사의 수식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위의 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차이점은 *ricos*의 *categoría*의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형용사와 명사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반면에 *mentira, felicidad*와 같은 단어는 단일 품사의 기능밖에는 없다. 그러면 서어에서 명사와 형용사로 다 쓰이는 단어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 (40a) los verdaderos incapaces
- (40b) los verdaderamente incapaces
- (41) Juan ganó el triunfo final/accidental.
- (42) Juan ganó el triunfo finalmente/accidentalmente.

3) Ana María Tauste, *Morfosintaxis del español coloquial*, pág.16b.

(43a) \*Este coche es extraordinario caro.

(43b) Este coche es extraordinariamente caro.

위의 예문들을 분석하면 부사의 수식만을 허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물론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이다. (42)와 (43)의 경우는 과연 의미상 차이점은 없는가? (41a)의 문장에서 형용사를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으로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다.

(41a) \*Juan ganó el triunfo que es final.

(41b) Juan ganó el triunfo que es accidental.

물론 두 형용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모순점을 보게 된다. (42)의 경우 부사에서도 차이점이 나타난다.

(42a) \*Juan ganó el triunfo de un modo final.

(42b) \*Juan ganó el triunfo de un modo accidental.

*finalmente, accidentalmente*와 같은 부사는 양태부사라기보다는 의미적 변화가 발생해서 'por fin'의 의미를 가지는 일종의 Adverbio valorativo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확실한 사실은 가령 'fase final'과 같은 명사구에서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의미의 뜻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좀 복잡한 문제점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44) Ella compró un coche rápido.

(45) Ella corre muy rápido.

위의 두 문장에는 모두 *rápido*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44)와 (45)에서 부사로 쓰인 경우를 상정해 보자.

(44a) Ella compró un coche que es rápido.

(44b) Ella compró un coche rápidamente.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44b)의 문장이 'Ella comió el pastel rápidamente'와 같은 문장보다는 덜 자연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44)의 문장에 다른 부사가 추가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 (46) Ella compró un coche rápido involuntariamente.
- (47) Ella compró un coche rápido evidentemente.
- (48) Ella compró un coche evidentemente rápido.
- (49) Ella compró un coche rápido accidentalmente.

(46)의 경우에는 involuntariamente라는 부사의 의미적 자질로 인해 rápido를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해석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형용사와 부사의 대립이 거의 소멸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50a) Ella pasó el tiempo agradable.
- (50b) Ella pasó el tiempo agradablemente.

Bosque도 이에 대해서 부사와 형용사의 접근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 어느 품사가 변질성이 더 있는지는 앞으로 연구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sup>4)</sup>

- (51a) Duró una hora escasa.
- (51b) Duró una hora escasamente.

(50)과 (51)의 경우는 형용사가 부사에 접근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el tiempo agradable'나 'una hora escasa'의 두 형용사는 명사구 내에서 다른 명사구를 수식하고 있는 통사적인 특성을 물론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사적 의미해석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Duró una hora'라는 동사구를 수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통사적인 관점에서 형용사가 동사구를 수식한다는 모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앞에서 언급했던 서술보어의 특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47)과 (48)의 경우에서 evidentemente라는 부사의 위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문장부사의 위치변화로 인한 의미변화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47)의 경우에는 문장부사로서 문두로 이동을 해도 의미에 전혀 차이가 없지만, (48)의 경우에는 'un coche evidentemente rápido'라는 명사구내에서 'rápido'만을 수식한다고 볼

4) Ignacio Bosque, *Las categorías gramaticales. Relaciones y diferencias*, págs.127-145.

수 있다. 또한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un coche evidentemente rápido'라는 명사구에서 'un coche rápido de un modo rápido'라는 해석은 전혀 할 수 없다.<sup>5)</sup>

(48)의 경우에는 *evidentemente*라는 부사가 명사구 밖으로 이동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48)의 경우 아래와 같은 해석은 (47)의 예문보다는 좀 힘들다.

(47a) Es evidente que compró un coche rápido.

부사의 어순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는데 위치에 따른 분류도 중요하지만 부사들이 한 문장에 있을 경우에 그 어순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대화체를 제외한 경우를 볼 때 부사의 위치는 우선 동사 전후에 위치하는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52) Juan lee mucho.

(53) Juan come demasiado./muy rápido.

(54) Juan vive tranquilo.

(54) Tú casi no comes nada.

(55) Tú comes no mucho.

(56)\*Tú comes casi mucho.

(52)-(54)의 부류는 *posición postverbal*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부사들인 반면에 *no*와 같은 부사는 동사의 전후에 다 가능하며 *casi*의 경우도 제약을 받는다.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도 앞에 위치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 문장내에서의 부사의 어순 문제는 결국 *Alcance*의 문제점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Juan Carlos Moreno의 분석은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그는 부사의 수식범위가 가장 광범위한 부사로서 *Adverbio Ilocutivo*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의 발화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로서 문장부사보다 상위부류의 부사로 간주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오

5) L.Gómez Torrego는 *Teoría y práctica de la sintaxis*에서 문장부사의 특성중의 하나로 위치이동의 자유를 들고 있다. págs. 53-54.

1) Estoy evidentemente cansado.

2) Evidentemente, estoy cansado.

3) Estoy cansado evidentemente.

는 부사가 문장부사로서 전체문장을 alcance에 가지고 있으며 동사구, 동사만을 한정하는 부사의 어순으로 설명하고 있다.<sup>6)</sup>

다음에는 -mente형 부사에서 나타나는 의미변화의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 (57) El poeta murió tempranamente.
- (58) El poeta murió católicamente/cristianamente.
- (59)?El poeta murió justamente.

(57)의 예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동사에 대한 수식어의 역할 이외에도 '화자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부사가 화자의 의견이 표출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다음 문장에서는 화자의 태도가 더욱 분명하다.

- (60) Lamentablemente, el poeta murió tempranamente.
- (60a) Es lamentable que el poeta muriera tempranamente.
- (60b) Lamento que el poeta muriera tempranamente.

'화자의 판단'이라는 개념도 매우 모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 Kovacci는 modalidad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문장부사, 단언에 있어 진리치에 대한 한정어(Especificadores), 화자나 청자에 관한 부사, 명제와 관련된 부사를 들고 있다.

그의 분류를 따르면 화자나 청자와 관련된 부사, 단언의 진리에 관한 한정부사와 Adverbio valorativo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61) Francamente, la música no me atrae.  
= Soy franco al decir que la música no me atrae.  
\* Es franco que la música no me atrae.
- (62) Los precios subieron, indudablemente.  
= Es indudable que los precios subieron.  
\* Los precios subieron, lo cual es indudable.

6) Juan Carlos Moreno에 따르면 부사의 위치 체계가 무너지면 그 문장은 비문이 된다는 것이다. *Curso universitario de lingüística general*, págs.359-369.

1) Por si no lo sabes, extrañamente Juan le hirió cruelmente.  
2)\*Extrañamente por si no lo sabes Juan le hirió cruelmente.

(63) Lamentablemente, él es el director.

= Es lamentable que él sea el director. 7)

그러나 이 분류법은 Jackendoff가 주장한 이분법적 분류보다는 매우 상세한 구분을 하고 있지만 주어와 직결된 부사(subject-oriented adverb)와 화자와 관련된 부사(speaker-oriented adverb)에 다 포함시킬 수 있으며 명제와 관련된 부사의 경우에도 위치가 의미해석에 변화를 준다고 볼 수 있다.

(64) Juan cree correctamente que Pablo resolvió la ecuación.

(65) Juan cree incorrectamente que Pablo resolvió la ecuación.

(66) Juan cree que Pablo resolvió la ecuación correctamente.

(67) Juan cree que Pablo resolvió la ecuación incorrectamente.

(64)와 (65)에서 확실한 것은 *que Pablo resolvió la ecuación*에 해당하는 명제문은 앞에 있는 부사와는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66)과 (67)의 경우는 종속문에 해당하는 부사이지 문장부사로는 간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부사의 의미적인 차이점을 분석해보면 양태부사가 아닌 경우에는 의미변화가 있으며 또한 그 다양한 의미를 일반화한다는 것 자체도 무리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부사들을 보더라도 그 차이점은 확실하다.

(68) Ella llegó justamente en ese momento.

(69) Tiene justamente la misma talla que yo.

(70) Eso es justamente lo que necesito.

---

7) Ofelia Kovacci, "Sobre los adverbios oracionales" en *Estudios de Gramática Española*, págs.163-178. 그의 분류를 따르면 Adverbio valorativo와 화자나 청자와 관련된 부사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Francamente, la música no me atrae.

= Soy franco al decir que la música no me atrae.

\* Es franco que la música no me atrae.

2) Los precios subieron, indudablemente.

= Es indudable que los precios subieron.

\* Los precios subieron, lo cual es indudable.

3) Lamentablemente, él es el director.

= Es lamentable que él sea el director.

위에 쓰인 *justamente* 부사는 다 “*exactamente*”나 “*precisamente*”의 뜻을 지닌다. 일부 부사들이 문장의 *modo*와 관련되는 경우를 볼 때 매우 복잡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 III. 결 론

본고에서는 서어의 -mente형 부사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Bello가 지적했듯이 “*frases sustantivas adverbializads*”의 성격은 우리에게 부사화(*adverbialización*)라는 현상이 간단하지 않은 현상이며 형용사 자체의 의미적 측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술보어와 부사와의 유사성은 본고에서도 밝혔듯이 부사와 형용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이기도 하다. 서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보여지듯이 형용사와 부사간에 전혀 차이점을 볼 수 없다.

(71) ¿Tendremos buen tiempo mañana?

Es posible./ Posiblemente.

(72) Te veo estupéndo./ estupéndamente.

(71)-(72)예문은 의미적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로서 과연 어느 부류의 형용사가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지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형용사의 의미적 속성과 직결된다고 생각된다. 문장부사와 비문장부사간의 통사적 의미적 차이점도 임의적 요소인 부사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부사가 전통적으로 형용사와 더불어 정도의 변화(*gradación*)가 가능한 품사로 간주해왔지만 모든 부사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다. 부사의 수식범위는 결국 한 문장의 의미해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수식범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문장의 중의성 문제가 발생하며 이점은 다시 한번 통사적인 측면과 의미론적인 요소가 매우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심지어 긍정문맥이나 부정문에서만 쓰이는 부사의 경우는 문장부사인 *no*와의 통사적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Adrienne Lehrer, "Complemente-oriented adverbs" en *LI*, No.3, 1975. págs. 489-494.
- \_\_\_\_\_, "Interpreting certain adverbs: semantics of pragmatics" en *Journal of Linguistics*, 11, 1975, págs.239-247.
- Alarcos Emilio, *Gramática funcional del español*, Madrid, Gredos, 1984.
- Alvárez Martínez, María Angels, *El adverbio*, Madrid, Arco, 1992.
- Ana María Barrenechea, "Operadores pragmáticos de actitud oracional: los adverbios en -mente y otros signos" en *Estudios lingüísticos y dialectológicos*, Argentina, Hachette, 1979, págs.39-59.
- Bosque, Ignacio, *Las categorías gramaticales: Relaciones y diferencias* Síntesis, Madrid, 1989.
- \_\_\_\_\_, *Sobre la negación*, Madrid, Cátedra, 1980.
- Brucart y Hernánz, *La sintaxis*, Barcelona, Crítica, 1987.
- Jackendoff, Ray S.,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MIT, 1972.
- Kovacci, Ofelia, *Estudios de la Gramática española*, Buenos Aires, Hachette, 1986.
- Moreno Cabrera, Juan Carlos, *Curso universitario de lingüística general*, Madrid, Síntesis, 1991.
- Larson, R.K., "Bare-NP Adverbs" en *LI*, 16, págs.595-621.
- López García, Angel, *Elementos de Semántica dinámica española*, Pórtigo, Zaragoza, 1977.
- Luján, Marta, *Sintaxis y semántica del adjetivo*, Madrid, Cátedra, 1982.
- Pottier, B., *Lingüística moderna y filología hispánica*, Madrid, Gredos, 1983.
- RAE,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1977.
- Seco, Rafael, *Manual de Gramática española*, Madrid, Aguilar, 1984.
- Tauste, Ana María, *Morfosintaxis del español coloquial*, Madrid, Gredos, 1992.

## Estudio sobre la sintaxis del adverbio -mente en español

Lim, Hyo-Sang

Es bien sabido que el adverbio en español tiene características de los elementos que pertenecen a la categoría del tercer rango. La polémica sobre la adverbilización nos hace pensar que el adverbio en sí mismo está muy ligado con los rasgos semánticos del adjetivo de que se deriva. Los llamados adverbios oracionales son aquellos que son fáciles de someterse a un cambio profundo del significado. Sin embargo, los adverbios de modo suelen tener el significado deducible de los adjetivos.

A pesar de la libre colocación posicional del adverbio en español, el movimiento de dicha categoría en una determinada oración produce el cambio de significado dependiendo de su carácter. La ambigüedad de una determinada oración se debe al problema del alcance de los adverbios. No obstante, podemos observar que existe una jerarquía posicional dentro de los adverbios.

La distinción entre el adverbio propiamente dicho y el llamado complemento predicativo consiste en que aquél no puede modificarse por un adverbio de frecuencia.

El hecho de que un adjetivo pueda acercarse a un adverbio derivado o viceversa nos hace pensar que la verdadera diferencia entre estas categorías no es tan absoluta.

Por último, el adverbio de negación constituye un factor muy importante a la hora de decidir el significado de una oración. Además, nos hemos dado cuenta de que un adverbio, por ejemplo, *prácticamente* no se puede emplear en un texto negativo.